# 건강한 일터를 만드는 HRD사업단과 경북산업보건센터

김아름
대한산업보건협회
경북산업보건센터
사내기자

경북산업보건센터(이하 경북센터)는 지난 2020년도부터 경상북도 HRD사업단과 함께 의료서비스를 지원하는 일을 하고 있다.
경상북도 HRD사업단이 어떤 일을 하는지 그리고 경북센터와 함께하는 사업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한다.

먼저, HRD는 'Human Resources Development'의 약자로 인적자원개발을 뜻한다. 한국노총 경상북도 지역본부에 소속되어 있는 경상북도 HRD사업단은 인적자원개발을 위해 크게 세 가지의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첫 번째는 취업지원서비스다. 취업지원은 구직자, 구인업체를 발굴하여 알선역할을 해주고 동행 면접 등 일자리 협력망을 구축하여 근로자와 사업장의 맞춤형 일자리 창출을 이룬다.

두 번째는 근로자들의 교통 불편 및 교통비 부담해소와 산업단지 근로환경개선 사업을 목적으로 산업단지 내에서 운행하는 무료순환버스이다. 경산산업단지 내에 무료순환버스 정류장을 지정하여 일반시내버스가 운행하지 않거나 통근버스가 없어서 출퇴근에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세 번째는 경북센터와 협력하여 5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출장의료서비스다. 건강보험공단에서 제공하는 기본검사 이외의 혈액 종합 검진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출장의료서비스를 통해 경북센터는 대상이 되는 사업장을 방문하여 검진을 하고, 검사결과가 나오면 사업장을 재방문하여 결과설명 및 사후관리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이 사업은 2020년부터 경북센터와 함께하고 있으며 지난 3월 16일에 한국노총경북지역본부 권오탁 의장이 방문하여 업무 협약식을 체결하였다. 2020년에는 500명, 2021년에는 10%가 증가한 550명을 대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향후 경북센터와 경상북도 HRD사업단은 한국노총 경북본부와 함께 코로나19의 종식을 대비한 신규사업아이템도 구상할 계획이다. 앞으로도 서로 상호 협력하여 노동자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경북센터와 경상북도 HRD사업단이 되길 바란다.